

익산시, 겨울철 재난대비 본격화

전담팀 구성 현장점검 강화... 13개 시·군 등과 협조체계로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익산시는 폭설과 한파 등 다가올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대비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한다.

지난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기간으로 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대비에 들어간다.

시는 분야별 관련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재난 사전대비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 13개 협업 가능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정비사항을 신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전주시 외 13개 시·군, 인근 자치단체 및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간 긴급재해응원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농축산시설의 폭설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축산시설 소유자간 비상연락망을 정비했다.

이를 토대로 대설특보 발령 시 SMS 문자와 139개의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신속한 기상상황을 전파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기경보 체

계를 구축했다.

또한 제설장비 사전정비를 실시하고 제설취약 시설물 모니터링을 위한 담당자를 확대 지정해 노후주택과 대형경량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재난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표 시 상황관단회의를 개최하고 3단계 상황근무로 교통두절 예상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해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완벽하게 실시해 시민이 행복하고 품격 있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오는 18일 전주기상지청과 공동주관으로 13개 협업기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읍·면·동 재난·산업담당자, 자율방재단 등 재난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책의 향연

12일 모현도서관 및 모현공원 일원서 북 페스티벌 개최

익산시립도서관이 오는 12일 모현도서관 및 모현공원 일원에서 '2019 익산 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책으로 답을 찾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독서골든벨, 북콘서트, 동화 작가와의 만남, 북 캠프존 등 책을 매개로 한 풍성한 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오전 10시 모현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식전행사인 매직비블스에 이어 책 읽는 가족 및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여태명 붓글씨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모현도서관 체육관에

뿐만 아니라 익산시 서점연합회와 북클럽, 여유담, 나는별, 시금치출판사의 참여로 도서 할인 판매가 진행되며, 사단법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에서는 도서교환장터를 열어 집에 있는 책을 다른 책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꿈꾸는 다라방',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저자 이지성 작가의 북콘서트는 오후 2시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강연은 나를 키우는 성공독서를 주제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인문고전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작가와의 대화, 시인회 등이 진행된다.

또한 동화 작가의 방에서는 지역 작가 장은영, 동화작가 소중애·이현, 동시작가 김금래, 그림책 작가 미우 등이 참여해 자신들의 책과 관련한 강연과 함께 체험활동을 함께할 예정이어서 평소 동화책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북 페스티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도심 속 힐링 공간인 북 캠프 및 전시존이다. 모현공원에 마련된 북 캠프존에서는 인디엔 텐트와 에어소파를 곳곳에 배치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기거나 가족 간, 친구 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남양주시와 우호교류 협정

동반성장 의지 다져



자립도시 군산시가 경기 남양주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며 두 도시간의 동반성장의 의지를 다졌다.

자립도시 군산시가 경기 남양주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며 두 도시간의 동반성장의 의지를 다졌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강임준 군산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양 시의 국장, 부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청에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호교류 협정을 통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해 함께 누리고 발전하는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

인구 69만명의 남양주시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로 진접, 별내, 다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등 도시의 경쟁력이 급부상한 곳으로 최근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일자리, 주택, 교통, 문화와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조성 등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재도약하기에 충분한 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다.

이번 협정은 군산시의 경기도권내의 도시 간에 최초로 이뤄진 우호교류 협정으로 지난 4월 군산시의 제안으로 시작돼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우호협정 체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앞으로 행정, 교육, 문화예술, 체육, 농산물 직거래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 두 도시의 상생과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호교류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전반적인 교류 추진 ▲ 우수 시책 공유와 활발한 인적교류 등 상호 교류협력에 노력하기로 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직장인 미래설계 교육

군산시가 40대 이상 세대 직장인들의 효율적인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4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 직장인들의 효율적인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 국내 최고 생애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총 7회에 걸쳐 군산시 보건소(수송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 은퇴준비를 위한 변화관리 ▲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담은 재무관리 및 재무계획(자산, 부채 및 세금관리) ▲ 생활법률 ▲ 건강관리 ▲ 대인관계 등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강의로도 알차게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과정 강사진은 심생활 법률에 정통한 양소영 변호사, 국내 생애설계 전문가로 정평난 조은주 커리어밸류 연구소 소장 등 단순 이론이 아닌 실무형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육생은 7일부터 80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이고 은퇴준비에 관심 있는 40대 이상 관내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미래설계 교육과정은 군산 시민의 퇴직 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 시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하나로써, 향후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위한 100인 원탁회의 개최

익산시는 지난 8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소상공인 스스로 만드는 정책을 발굴·지원하고자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서비스업 △제조업 및 기타업종 △지역화폐 및 사업전반 중 관심분야별로 110여 명의 참가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날 100인 원탁회의는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 익산시전통시장상인회연합회, 익산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소비자연합익산지부, 유관기관, 소상공인, 시민 등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소상공인 밸리댄스학원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익산센터 및 익산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관심분야에 대한 모듈별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 진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방향과 대책' 주제 관련 설명과 함께 총괄 퍼실리테이터가 진행했다.

특히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집중 개발하기 위해 모듈별 1명씩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소상공인 영업활동 홍보 지원방안, 소상공인 영리강화사업 마련,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군산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군산 산북동 장전·해이 지구 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북동 장전·해이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선정된 국가공모사업으로(우리동네살리기형) 공적임대주택공급, 생활편익시설 확충, 주민자생조직 육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타당성평가, 실행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안정된 주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공공임

대주택 공급 사업이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 9월에 공사가 착수돼 202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군산도시가스과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되면 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은 물론 편리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